YONSEI | BUSINESS | SCHOOL

OL-18[1]

<무한도전> – '도전의 길'

"위기 때마다 우리는 긴 고민 안 하고 시청자에게 어떻게 할까 답을 물어본다.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게 솔직해지고 싶다는 건 나뿐 아니라 멤버 모두 다 같은 생각이다"

- 2014년 10월 '<무한도전>' 400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태호 PD -

2015년 4월 10일. 김태호 PD는 밀려오는 전화를 받고는 급히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은 이미 장동민이라는 이름으로 시끄러웠다. <무한도전>의 막내 멤버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하차한 가운데 새로운 멤버를 뽑는 식스맨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김태호 PD도 내심 새로운 멤버로 생각하던 장동민이었다. 그런데 그가 1년 전 진행했던 온라인 팟캐스트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수 천 개가 넘게 달린 댓글들이 연신 '장동민이 <무한도전>의 새로운 멤버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은 그' 정도의 발언은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며 답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 논쟁의 행렬을 정신 없이 읽던 김태호 PD의 핸드폰이 또 다시 울렸다. 장동민이었다. 김태호 PD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전화를 받았다. 곧바로 상대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PD님, 저, 사퇴하겠습니다.]

<무한도전>이 되기까지

역사의 시작 – <무모한 도전>

<무한도전>과 김태호 PD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과 달리 그가 처음부터 <무한도전>과 함께한 것은 아니었다. <무한도전>의 처음은 2005년 4월 23일, MBC 권석 PD가 <토요일>이라는 토요 버라이어티의 서브코너로 런칭한 <무모한 도전>에서 시작한다. <무모한 도전>은 시청자가 올린 특이한 대결 소재에 훈련, 도전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찌질한 남자'들이 모여서 좌충우돌하며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을 일삼는 코믹한 리얼 버라이어티로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무모한 도전>은 당시 SBS의 <연애편지>와 KBS의 <스펀지>와 경쟁하기 위해

[1] 본 케이스는 2015년 1학기 이무원 교수의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 수업의 지도를 받아 경영학과 김수오, 김병찬, 김효주, 양현준, 최민경이 작성함.

MBC에서 야심 차게 출범시킨 토요 버라이어티의 코너였으나,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2]

<무모한 도전>은 당일 스케줄이 없는 연예인들을 섭외하고 캐치프레이즈 자체를 'MBC 전 프로그램 중에서 최저 제작비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으로 내세우며 3D적 요소를 강조했다. 방송의 목적은 '초일류 연예인이 되기 위한 무한 도전'이었으나, '황소 vs. 인간 줄다리기', '하수구 vs. 바가지 목욕탕 물 퍼내기', '소방차 사이렌 vs. 인간 소리지르기'와 같은 해괴한 일들을 시도하고, 이러한 도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내용의 주가 되었다. **[Exhibit 1]**

이런 컨셉의 시도들이 이전에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권석 PD가 도입한 아이템이 여태 시청자들이 경험해본 적 없는 것이었다. 특히 도전을 위한 훈련은 도전과는 영 관계 없는 몸 개그를 선보이며, 쇼프로그램 중심의 방송계에서 슬랩스틱 형태의 개그를 부활시켰다. 이것은 예산과도 관계가 있는데 제한된 예산으로 방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몸 개그를 도입한 것이다. 일례로 '전철 vs. 인간 100m 달리기'에서는, 훈련을 위해 제작비 2만원의 장난감용 기차모형으로 도전현장을 재현하기도 했다.

정규멤버는 유재석, 표영호, 정형돈, 노홍철이었고, 매 에피소드마다 게스트를 초대하여 진행하였다. 후에 <무한도전>의 멤버가 된 정준하, 하하, 박명수도 게스트로 출연하였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마리아 샤라포바, 영화배우 차승원 등을 특별 게스트로 섭외하기도 하였지만 반등의 기회가 되지는 못했다.

김태호 PD와의 호흡 시작 -<무리한 도전>

2005년 10월 <무모한 도전>뿐 아니라 본 방송이라 할 수 있는 <토요일>의 저조한 경쟁력으로 기인한 개편이 일어났다. <강력추천 토요일>로 이름을 바꾸며, 기존에 있던 코너 중 <무모한 도전>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들을 폐지하였다. 서브코너였던 <무모한 도전>은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하였다. 2005년 10월 29일부터 <무리한 도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메인코너로 편성되었다.

이 때 조연출이었던 김태호가 PD가 되었고, <무모한 도전> 때와는 달리, 제대로 된 예산을 지급받게 되었다. 하지만 예산이 늘어나고 메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도, 주 컨텐츠는 3D 슬랩스틱 코미디였다. 시청률은 서서히 하락했고, 고정 출연자들도 다른 프로그램의 섭외로 간간히 자리를 비우는 일이 생겨났다. 본래 해오던 야외 프로그램을 5주만에 정리하였고, 스튜디오로 촬영 장소를 옮겼다. 2005년 12월 17일부터 스튜디오 쇼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포맷 전환은

[2] TNS서울의 조사에 따르면, <토요일>의 평균시청률은 9.38%였다. 그러나 <무모한 도전>의 첫 방송 시청률은 4.3%, 평균 시청률은 7.5%로, 황금 시간대라고 불리는 토요일 오후 5:55분에 진행한 타 방송 대비 저조한 성과를 올렸다.

<무한도전>-퀴즈의 달인>으로 이어졌다.

본격적 변화 준비 - <무한도전: 퀴즈의 달인>

<무한도전>의 초기 <무리한 도전>이 단 6회만에 종결되고, 새로운 형식으로 실내촬영을 하게 되면서 <무한도전: 퀴즈의 달인> 코너가 새로 만들어졌다. 주력코너는 두 가지로, 몸풀기였던 '거꾸로 말해요 아하(이하 '아하')'와 본편이라 할 수 있는 '퀴즈의 달인' 코너였다. 이것은 기존의 훈련 후 도전의 형식을 그대로 본 따 '아하'로 연습을 하고 퀴즈의 달인으로 퀴즈대결을 한다는 컨셉이었다.

하지만 초반부 퀴즈의 달인은 생필품을 선물로 주었다가 바뀌는 등 자리를 못 잡는 모습을 보였다. <무모한 도전>의 기본적인 컨셉이었던 '유재석과 오합지졸'들의 기조를 위해, 정답을 맞히기 위한 퀴즈대결 이라기 보다 실제로는 웃기기 위한 무식대결로 진행하였다. 때문에 문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인데도 틀리는 억지스러운 면도 있었고, 당시 고정멤버였던 이윤석의 경우 대학강의를 하고 있던 상태여서 무작정 틀릴 수만도 없는 등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해서 간판격인 '퀴즈의 달인' 코너 역시 직전 <무리한 도전>과 비슷하게 단 6회만에 없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한도전: 퀴즈의 달인>의 타이틀을 달고 <무한도전>은 2006년 01월 28일 설 특집부터 '거꾸로 말해요 아하'와 멤버간의 비난 및 잡담으로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시행해 왔던 앙케트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출연자들끼리 벌인 여러 가지 앙케트의 질문은 지극히 단순해 '가장 공부를 잘 했을 것 같은 사람', '가장 여자친구를 잘 지켜줄 것 같은 사람' 같은 것들을 물었다.

첫 앙케트는 '가장 잘 생긴 사람은?'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앙케트 형식은 의외로 인기몰이를 하기 시작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이 선정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것이 인터넷상 팬들을 양산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름이 <무한도전>인데 왜 퀴즈만 푸는가?"와 같은 지적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형식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마침내 2006년 5월 6일 대한민국 최초의 '리얼 버라이어티쇼'인<무한도전>이 탄생하였다.

[3] 당시 평균 3만 명 정도가 앙케트에 참여함

김태호 PD의 <무한도전>

김태호 PD의 연출방향성

1. 형식 없는 형식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은하철도 999'나 '이상한 나라의 폴'을 보면 주인공이 매 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모험을 하잖아요. <무한도전>도 비슷하지 않나요?"

김태호 PD는 <무한도전>의 기획의도를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비교해 설명한다. 보통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들은 고정된 포맷이 있고, 매 회 다른 게스트들이 출연한다. 하지만 김태호 PD는 <무한도전>을 맡으면서 프로그램에 '은하철도 999'의 메텔과 철이처럼 고정 출연진들이 매 번 새로운 형식이나 도전을 하는 '형식 없는 형식을 도입했다. 매 회 새로운 주제, 새로운 아이템을 설정하고 출연진들이 그 안에서 내용을 구축해나간다. <무한도전>의 주인공은 다른 예능 프로그램들처럼 게스트가 아닌,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형돈, 하하, 노홍철 등 6명의 고정 출연진이다.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드는 시간은 게스트를 섭외하는 것이었다. 대신에 <무한도전>은 게스트 섭외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무한도전>이 어떤 아이템을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다.

매 회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란 제작진들에게도 큰 도전이었다. 매 주 1회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형식을 시도하는 것은 프로그램 이름대로 무한한 도전이었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새로운 촬영장을 찾아 헤맸다. 정해진 형식이 없이 늘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하는 출연진의 고생도 마찬가지다. 제작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무한도전>의 제작 방식은 기존 예능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결국 이런 무모함이 MBC의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전 국민적인 예능프로그램으로 성장케 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2. 출연진의 캐릭터 구축

김태호 PD가 초기 6인의 고정 출연진을 확정한 뒤 가장 먼저 주력한 것이 그들 각각의 독특한 캐릭터를 살리는 것이었다.**[Exhibit 2]** 그게 <무한도전>의 첫 승부수였다. 김태호 PD는 출연진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다. 매 번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무한도전>이 새로운 주제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초기 6인 멤버 체제를 완성하면서 <무한도전> 내에서 실질적인 리더를 맡고 있는 유재석에 대해 김태호 PD는 "유재석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어 종종 공동 연출을 하는 느낌이 든다"고 까지 설명하기도 했다. 박명수는 차근차근 노력을 통해 인기를 쌓아간 출연진이다. 프로그램 안에서는 매사 불만 많고 불성실한 캐릭터를 구축했지만, 그는 늘 "인기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며 매주 긴장을 풀지 않고 어떻게 웃길지 진지한 고민을 한다고 한다. 정준하는 <무

한도전> 멤버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로 시어머니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정형돈은 개그맨의 입장으로는 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재미없는 캐릭터'라는 설정을 소화해냈다. 하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악역을 맡고 시끄러운 아이 캐릭터를 맡았다. 끝으로 노홍철은 '4차원적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구축해냈다.

김교석 대중문화 평론가는 "<무한도전>이 '캐릭터'를 만들면서 출연자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어쩌면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정서를 함유하게 됐고, 좀 더 시청자와 거리가 가까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3. 자막

김태호 PD는 <무한도전>을 맡으면서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제작진, 출연진과 시청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자막'이라는 장치를 사용했다. <무한도전>의 자막은 연출자가 마치 관찰자처럼 제3자의 시각에서 프로그램을 보고 평가하는 자막을 사용했다. 시청자들에게 말을 거는듯한 자막은 시청자에게 제작진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과 함께, 시청자들과 제작진 간의 소통을 이루어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무한도전> 제작진과 출연진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무한도전>은 자막을 통해 멤버들의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캐릭터 부각에 일조하기도 했다. <무한도전> 자막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슈가 된 내용이 불과 일주일만에 <무한도전> 자막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한가지 <무한도전> 자막의 특징적인 면은 자막에 사회를 바라보는 <무한도전>만의 시선이 녹아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무한도전>만의 시각을 들어내면서 이를 통한 풍자적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다.**[Exhibit 3]** 이 측면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 초기에 김태호 PD는 'PD의 변'이라는 궁서체의 자막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으며 스스로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다. 자막 시스템은 이 후 <무한도전>뿐만 아니라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차 '당연시' 되는 예능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각각의 디자인, 어투는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연출자, 출연진 그리고 시청자 간의 의사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4. <무한도전>적인 조직 구조

<무리한 도전>에서부터 현재의 <무한도전>을 이끈 김태호 PD는 현재 MBC의 간판 예능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규모의 팀을 꾸리고 있다.[4] 당시 PD들이 집권적이고 고압적이었던 반

[4] 기획: 김구산, 연출에 김태호, 박창훈, 조욱형, 강성아 / 조연출: 정다히, 이민지, 박종화 / 외부 조연출: 김효연, 정은비, 이신지, 김민형, 김부경, 한예슬 / 작가: 이언주, 신정희, 김란주, 이지예, 이지연, 백민정, 이영주, 문아름

면, 김태호 PD는 이 팀의 리더로서 제작진과 출연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결론 나올 때까지 새벽 아침까지라도 회의를 이어 간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몰입해서 한다.", "항상 의견을 물어본다. 메인부터 막내까지.", "보통 상대 의견을 안 묻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너는 어떻니 하고 항상 물어본다."

- 2015년 3월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이언주, 김란주 작가 –

다음은 김태호 PD에 관한 또 다른 평가이다.

"<무한도전>은 포맷이 없기에 매우 힘들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정해진 게 있으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어려운 길을 택했다. 근데 이 선택이 <무한도전>이 장수하는 비결이 됐다. 나영석 PD가 포맷 중심이라면 김태호 PD는 작가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무한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 같다. 멤버들과 김태호 PD가 초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관리도 뛰어나다. 태호는 내성적인 편인데 강하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다. 같은 아이템을 다뤄도 태호가 만지면 다르게 나온다. 그 만큼 고민의 산물이다. 후배지만 많이 배우고 있다."

- 2015년 3월 TV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권석 부국장 -

또한 다음의 일화를 통해 김태호 PD가 <무한도전>의 시스템을 자신이 생각하는 <무한도전>으로 만들기 위해 했던 다방면의 시도를 볼 수 있었다.

<무한도전>을 맡게 된 김태호 PD는, 출연진 6명이 현장에서 만들어 내는 재미를 방송으로 전달하기에는 기존의 카메라 2대와 붐 마이크 하나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영상팀에 카메라 추가를 요청하였지만, "웃기지 마라"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 밖에서 떠돌던 외주 카메라맨들을 모아서 아예 외주회사를 차리도록 했고 멤버마다 카메라를 붙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회사 인사위원회에 불려가기도 했죠. 이제라도 카메라 여덟 대를 내달라고 회사에 말하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 시스템을 바꾼 김 PD는 마이크 여덟 대를 카메라마다 붙였다. 그랬더니 "홍철이의 독창적인 코멘트와 형돈이의 어색한 모습" 등 캐릭터들의 세세한 이야기들이 카메라와 마이크에 잡혔다.

- 예능 PD 인터뷰 모음집 '다큐처럼 일하고 예능처럼 신나게'에서, 김태호 PD –

이러한 그의 시도들은 예능의 판도를 바꾸었다. <무한도전> 촬영에 수십 대의 카메라가 사용되고 멤버 1인당 최소 1대 이상의 카메라가 따라다니며 그들의 말과 행동 모두를 담아낸다. 이는 예능의 대형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무한도전>의 도약

<무한도전>이라는 체제 변화에 적응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입하였다. 초, 중반시청률 평균 16.02% (2007.01.06~2007.06.30)을 기록하였고, 중, 후반기에는 시청률 평균 20.41% (2007. 07.07~2007. 12.29)로 평균 20%를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무한도전>은 2007년 MBC 프로그램 제작상 '최우수 프로그램상', '예능부문 우수프로그램상', 2007년 MBC 방송연예대상 '대상',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예능으로 자리잡았다. 그 후 시청률은 이후 20% 초반과 10% 후반의 시청률에서 머물던 시청률은 2008년 5월 이후 15.77%를 기록하여 10% 중반의 시청률로 안정화 되었다. .**[Exhibit 4]** 이 시기 동안 <무한도전>의 성공의 비결은 크게 3가지로 꼽힌다. : **매 회 특집, 장기프로젝트, 팬덤의 지지**

1. 매 회 특집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는 '형식 없는 형식'이라는 타이틀을 내걸면서, 매 회 특집을 지향하였다. 기존 예능 방송에서 매 회 새로운 특집이라는 형식은 김태호PD가 새롭게 시도하는 형식이었다. 형식을 잡고, 형식에 맞는 기획을 하기 위해서 작가와 피디는 새로운 방송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제작진들은 '특집 경험'을 쌓아갔고, 이는 위기의 순간에 <무한도전>이 대응하게 해주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결방 혹은 지체 없이도 새로운 컨텐츠를 내보낼 수 있는 내부적인 역량을 축적해나갔다.

2011년 방영된 <무한도전> '우천시 취소특집'은 제작진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애초에 제작진은 야외 특집을 구성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해 당초 기획이 무산되었고, <무한도전> 제작진은 단지 '스튜디오' 하나만을 빌려서 오히려 이를 '우천시 취소특집'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특집으로 만들어냈으며 박명수와 정준하의 '불장난 댄스'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화재를 일으키며 웃음을 이끌어내었다. 이와 같은 대응은 형식 없는 형식으로 매 회 특집을 준비했던 <무한도전> 제작진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특집이었다. 최근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예능 제작 경험을 사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김태호 PD를 비롯한 제작진들의 축적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2. 장기프로젝트

1) 도전과 목적

이 당시 김태호 PD의 가장 큰 도전은 장기프로젝트의 실천이었다. 평균 예능 프로그램에서 2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한 적은 없었다. 그 이유는 장기프로젝트 특성상 첫 방송의 시청률이 저조할 경우 마지막 방송까지의 시청률이 저조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멤버들 역시 장기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 회 특집과 병행해서 준비해야 하기에 방송 스케줄을 종종 변경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식스맨' 특집에서 후보 최시원의 단점 중의 하나로 "해외

스케줄이 많은 아이돌 가수이기에 장기 프로젝트와 돌발 스케줄이 많은 <무한도전>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언급이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이유는 <무한도전>이라는 이름이 있기에 김태호 PD는 '도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김태호 PD는 새로운 도전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이끌었다. 장기프로젝트의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하였고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많은 공감과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비인기 스포츠 프로젝트를 통해 무관심 속에 갇혀있던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었다.

2) 대표적 장기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예는 '가요제'이다. 2007년 7월 7일, 61회 '강변북로 가요제'가 처음으로 선 보였다.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는 음반이 나온 후에 온라인 음악 사이트 멜론의 일간차트 3위, 주간차트 4위에 오르는 등 그 인기를 반영했다. 그 후로, 여러 유명 연예인들, 작곡가와 가요제를 꾸미면서 질적인 측면 역시 높아졌고 <무한도전>을 대표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되었다.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장기 반복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바로 '달력 특집'이다. 멤버들의 사진을 간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달력'은 매번 컨셉을 달리하였고, 2007년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프로젝트를 이어오면서, <무한도전>의 대표적인 반복 장기 프로젝트로 굳어졌다. 앞서 언급한 가요제와 달력 특집은 모두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되었다. .**[Exhibit 5]**

마지막으로 '비인기 스포츠'에 관한 프로젝트이다. 댄스 스포츠를 주제로 하여 방영된 2007년 11월 24일 '쉘 위 댄스'를 시작으로 205회~ 215회까지 무려 10주 동안의 방송으로 화제가 되었던 '프로 레슬링 특집'을 통해서는 정준하의 부상투혼 등 멤버들이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노력 등 경기 뒤에서의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그 노력으로 만든 경기 혹은 대회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노력에 공감하고, 멤버들의 순간 순간 감정에 공감하며 17.5%의 시청률[5]로 막을 내렸다.

3. 팬덤의 지지

<무한도전>의 도약에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팬'의 역할이 컸다. 앞서 살펴보았던 달력의 경우 당시 10만부를 한정 판매한 결과 매진이 되었다. 다음 년도인 2009년에는 45만 8000부가 팔려 매출 2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2011년 달력은 60만부에 이르는 판매량을 기록하여 <

[5]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100&g_serial=281270

무한도전>을 향한 팬의 애정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무한도전>이 추구하는 사회 공헌의 가치에 팬들이 반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무한도전>의 팬, 일명 '무도팬'들은 '네이버', '디씨인사이드 <무한도전> 갤러리', '무도피디아'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무한도전> 팬은 단순한 예능 팬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단순히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을 즐겨 시청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였다. 스스로 '리뷰북'을 발간하여 <무한도전>의 역사를 정리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무도피디아'라는 예능 최초 팬 사이트를 만들었다. 현재 <무한도전>이 사용하고 있는 공식 캐릭터의 원작자로 <무한도전> 팬인 '별똥별'이 그린 '<무한도전> 카툰'인 것을 통해 <무한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팬들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무한도전>의 위기론

<무한도전>은 현재 10주년을 맞았고 많은 위기론을 거쳐왔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외부적인 위기론이 존재한다. 이미 국민예능이 되어버린 <무한도전>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할 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내부 위기론

1. 반복성

'매 회 특집' 이라는 형식은 <무한도전>이 성공해왔던 원동력이다. 그러나 많은 방송을 거듭하면서 <무한도전>은 소위 반복성의 특집을 하게 되었고, 새로움 보다는 안정성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왔다. 가장 큰 원인은 새로운 중, 장기 프로젝트의 부재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기 프로젝트는 크게 가요제, 달력, 비인기 스포츠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멤버 구성진, 컨셉은 조금씩 바뀌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다. 이러한 반복이 <무한도전>의 도전을 진부하게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했다. 현재의 <무한도전>을 있게 해준 매 회 특집이라는 점이 오히려 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캐릭터들 역시 <무한도전>을 <무한도전>답게 만든 요인이지만 많은 방송으로 인해 정형화된 캐릭터가 되어 <무한도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었다. 지금은 하차한 노홍철의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배신과 사기의 캐릭터로 이제는 예측 가능한 캐릭터가 되었고, 박명수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욱하는 캐릭터가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특집을 통해 각 인물의 캐릭터가 정해졌고, 이는 초반의 신선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2. 윤리적 문제

최근까지 <무한도전> 멤버들은 도덕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멤버인 길과 노홍철의 경우는 모두

음주운전으로 하차하였기 때문이다. 길은 <무한도전>에 중간에 합류하였기에, 영향력이 다른 멤버들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홍철의 경우는 다르다. '돌+I' 라는 애칭을 얻으며 다른 멤버보다 소위 '4차원 캐릭터'를 구축하였으며, 넘치는 수다로 <무한도전>의 흥을 돋구는 역할을 했으며, 추격전에서는 재빠른 머리와 배신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기에 노홍철의 하차는 김태호 PD가 지금까지 구축해놓았던 6인 체제를 흔드는 큰 사건이 되었다. 이에 팬들도 노홍철을 다시 '6번째 멤버'로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6]

외부 위기론

1. 팬덤의 부작용

팬덤은 2012년은 파업으로 인해 <무한도전>이 약 6개월 간 결방했을 때, <무한도전>이 버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무한도전>의 팬들은 아이돌보다 더 영향력이 큰 팬덤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한 팬덤이 프로그램에 내, 외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되었다.

2012년 취소되었던 '수퍼콘서트 7'[7] 사건을 통해서 팬덤의 영향력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무한도전>의 촬영과 관련 없이 <무한도전> 출연진들의 사비로 진행되는 콘서트였다. 당시의 논란은 '왜 콘서트를 유료로 하는 가' 에 관한 것이다. 팬덤 콘서트의 가격을 유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팬들은 많은 불만을 가졌고, 이는 콘서트의 취소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비로 진행되는 콘서트의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간섭 역시 많은 부정적인 여론을 낳게 했다. 최근의 '식스맨'에서도 팬덤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김태호 PD가 새로운 <무한도전>의 멤버를 영입하기 위해서 기획한 특집이다. 여기에 '광희'가 선발이 되면서 심지어 '광희 하차 서명운동'이라는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Exhibit 6]**

2. 경쟁자

<무한도전>의 성장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른 대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쟁 프로그램을 동 시간대 타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 전체로 확장해서 보기로 한다. 이 때 예능 프로그램들의 대응은 대게 <무한도전>의 '리얼 버라이어티'를 차용해 조금씩 형태를 바꾸는 형식이었다. 최근에는 경쟁 프로그램들이 <무한도전>의 장점인 장기 프로젝트나 시청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매개체로 하는 진화된 대응 형태를 보

[6] 무한도전 '식스맨' 투표 결과 - 48% 차지. (출처 : 네이트)

[7] 리쌍컴퍼니 주최

여주고 있다. **[Exhibit 7]**

1박2일 <무한도전>과 유사한 리얼 버라이어티를 추구하며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스타 PD, 강호동이라는 유명 MC, 대본을 최소화하고 출연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웃음을 이끌어내는 방식 등 <무한도전>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젊은 연령층이 <무한도전>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1박2일은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함께 웃으며 공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무한도전>보다 유행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작고, 시청자들이 여행-복불복 게임-취침으로 이어지는 고정된 포맷에 대한 지겨움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삼시세끼 <무한도전>만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장기 프로젝트를 프로그램 내에 구현한 경쟁 프로그램이다. 강원도 정선에서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한다는 컨셉하에 4계절별 시즌제로 방영되며 이서진, 옥택연에 더해 매회 초빙되는 게스트로 방송이 제작된다. 계절별 시즌제로 운영되어 제작진들이 시즌 중간에 쉬어갈 수 있다는 장점과 시골 생활에 대한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삼시세끼 또한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이야기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한계가 있고, 게스트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 <무한도전>이 적극적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BJ를 맡은 출연자들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송이다. BJ들은 시청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 시청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용하고, 시청자들은 방송에 직접 개입하고 소통한다는 즐거움을 맛본다. BJ를 맡은 출연진들은 각자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고, 시청자들 또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BJ들이 직접 방송 컨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컨텐츠 확장의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다만 <무한도전>보다 PD의 프로그램 운영의 운신이 작고, BJ의 인기나 능력에 프로그램의 성패가 크게 좌지우지된다는 단점이 있다.

<무한도전>을 향한 무한 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무도다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는 <무한도전>이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조금 큰 특집 중 하나로 남을 뻔 했다. 초기 '토토가'의 기획 시작은 <무한도전> 멤버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방송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중의 하나였다. 여기까지는 <무한도전>에서 많이 시도한 포맷 중 하나로 크게 특별할 것은 없었다. 주제는 90년대 한국 가요 르네상스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잊혀진 가수들과 노래들을 2014년에 다시 보여주는 것으로, 초기에 공연을 관람하는 청중은 1996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 제한했지만, 좀 더 열광적인 관객의 반응을 얻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앴다.

그리고 대망의 첫 방송 후 반응은 가히 열광적이었다. 15.3%에 불과했던 토토가 예고 방송의 시청률은 본격적으로 무대가 나오는 첫 번째 방영분에 19.8%, 두 번째 방영분에서는 22.2%까지 올랐다. 엔딩곡으로 터보의 '트위스트킹'이 나올 땐 순간 시청률 35.9%까지 치솟았다. 절대적인 수치였다.

여기에는 물론 '토토가' 자체의 라인업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90년대 가요계의 한 대목을 풍자했던 가수들[8]이 보여주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퍼포먼스에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포맷은 사실 신선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장 명절 특집들에서 <무한도전>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시도한 적이 있는 기획들이다. 하지만 <무한도전> 김태호PD의 스토리텔링 솜씨가 곁들여지며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했다. 스타 셀프카메라 등 당시 유행했던 프로그램 포맷을 차용한 점이 돋보였다. 또 무대 디자인은 물론 방송 자막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당시 느낌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것은 문화부흥기였던 90년대에 대한 대중의 강력한 향수를 <무한도전> 10주년 기획으로 잡아낸 김태호 PD의 역작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무한도전>의 회복세와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토토가 특집 바로 다음 화의 경우 시청률이 14.1%로 뚝 떨어졌다. 이미 '토토가'의 진행 전 <무한도전> 내에서 독특한 캐릭터로 큰 역할을 수행하던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황이었다. '토토가'로 당장의 커다란 시청자들의 '5인 체제의 불완전성' 우려는 종식시켰으나 이것이 단기적이라는 것을 김태호 PD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식스맨 프로젝트

노홍철의 음주 운전 사건은 이미 같은 사건으로 이전 멤버였던 길이 프로그램을 하차했었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었다. 그가 프로그램을 하차하는 것은 길과의 형평성 측면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측면에서 당연한 일로 보였다. 하지만 그가 떠나간 빈 자리를 어떻게 채우냐는 것은 PD, 출연진을 비롯해 많은 이들에게 고민이었다. 이렇게 '5인 체제'로의 방송이 계속되자 심지어 노홍철을 근시일 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새로운 멤버를 충원하지 않는 것이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반박하듯 토토가 특집이 끝난 지 두 달 만에 김태호 PD는 <무한도전> 여섯 번째 멤버를 뽑기 위한 '식스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식스맨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2015년 3월 5일부터 <무한도전> 공식 트위터에는 식스맨을 추천 받는다는 트위터가 띄워졌다. 이후 5일 동안 시청자들의 추천을 받아 득표수를 집계한 뒤 전/현 멤버를 제외한 상위 13명을 선발하고 제작진이 사전에 생각해 둔 몇 명을 합쳐 최

[8] 토토가 가수 출연진: 김종국, 김정남, 김현정, 바다, 유수영, 서현, 김성수, 이재훈, 김예원, 조성모, 소찬휘, 이정현, 지누션, 엄정화, 김건모, 이본

종 후보군들을 확정했다. 이렇게 시청자들이 직접 멤버 영입에 개입한다는 사상 초유의 컨셉으로 <무한도전>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새 후보자에게도 <무한도전>의 공석은 '독이 든 성배'로 불렸다. 이미 인지도가 탄탄한 <무한도전>의 멤버로 영입이 되면 명예와 인지도는 자연스레 뒤따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식스맨 선발과정 1회차에서 보여진 그래프[9]처럼 시청자들이 <무한도전>의 새로운 멤버에게 바라는 것이 지나치게 과했다. 노홍철의 역할을 대체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10년 넘게 호흡을 맞춰온 <무한도전>에 섞여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어린 시선들이 가득했다. 또한 <무한도전> 제작진이 거대한 팬덤이 되어버린 시청자들의 눈치를 너무 살피는 모습을 보여,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시청자들의 반감을 더욱 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도전>이 계획한 장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6의 멤버를 뽑는 과정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식스맨 선발과정은 <무한도전>의 위명과 같이 숱한 이슈를 남겼다. 강균성, 유병재과 같이 무명에 가까웠던 인물의 재발견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10]했지만, 가장 큰 이슈는 유력한 후보였던 장동민과 관련한 '여혐 논란'이었다. 장동민은 KBS 공채 개그맨으로 이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동료 개그맨들과 했던 발언들[11]이 문제가 되어 후보에서 자진 하차했다. 이는 <무한도전>을 둘러싼 여론을 두 갈래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한쪽에서는 과거 발언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으며, 프로그램 이미지의 저하와 프로그램 자체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무한도전> 멤버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무한도전>의 멤버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하냐는 질문을 던지며, <무한도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재미이지 인간성이 아니라며 팽팽히 맞섰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장동민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공언했던 식스맨 선발과정에서, 무한도적 제작진은 방송 내에서 장동민이 하차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고 아이돌 가수인 황광희의 소속사인 스타제국의 로비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

[9]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두뇌-체력-신선함-젊음-화제성-인지도** 그래프가 보여졌는데, 이 그래프는 '무한도전의 새 멤버에게 바라는 필요조건'을 순위대로 나열한 것이었다.

[10] 유병재는 이후 YG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강균성은 샴푸 CF를 포함한 각종 CF의 인기 모델이 되었다.

[11] 욕설들과 여자의 성경험에 관한 발언들이 있었다.

무한도전 – '도전의 길'

"사실 내가 될 줄 정말 몰랐다.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누를 끼치지 않게 몸을 바쳐 열심히 하겠다"

- 2015년 4월 <무한도전> 식스맨 발탁 소감에서, 광희 -

'광희 식스맨 반대 서명'. 김태호 PD는 다시 한 번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 속 실시간 검색어를 바라보았다. 이미 장동민은 후보를 사퇴했다. 이제 PD로서 그에게 주어진 가장 적합한 후보가 광희라는 것은 암묵적인 합의였다. 한 화 90분의 1분 1분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었다. 김태호 PD의 체감상 같은 시기 진행되는 총리 후보자 청문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았다. 그 정점이 광희의 식스맨 합류를 반대 서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의에서 연출진들의 이견은 크지 않았다. 작가 중 한 명이 말했다. "누구를 뽑든, 그리고 언제 뽑든 식스맨은 논란이 됐을 것입니다. 광희로 가죠." 김태호 PD는 고개를 끄덕였다.

4월 18일, <무한도전>의 기존 멤버 5인의 투표로 새로운 <무한도전> 멤버가 선발되었다. 그 주인공은 광희였다.

[Case 질문]

1. 예능에서 Feedback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가?

2. 최근 무한도전 팬들의 Feedback은 많은 부정적인 논란을 이끌고 있다. 이에 대해 무한도전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

3. 김태호 PD의 새로운 도전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4. 최근 무한도전은 Exploration에서 Exploitation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이며 새로운 도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과연 예능에서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은 공존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김태호 PD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EXHIBIT

[Exhibit 1] - 위키백과

회차 (방영일)	도전내용	멤버*	시청률 (%)
1 (4.23)	황소 vs. 인간 줄다리기	표영호(고정), 이정	11.17
2 (4.30)	전철 vs. 인간 100m 달리기	이병진, 이켠	9.54
3 (5.7)	유람선 vs. 인간 오리배	이병진, 김재덕	8.68
4 (5.14)	하수구 vs. 바가지 목욕탕 물퍼내기	박명수(고정), 이병진	10.93
5 (5.21)	수상구조견 vs. 개헤엄 대결	은지원	8.33
6 (5.28)	탈수기 vs. 인간 빨래짜기	이병진(하차), 김성수	8.22
7 (6.4)	동전 분류기 vs. 인간 동전분류	하하	7.47
8 (6.11)	버스 안에서 서서 버티기	최건	9.53
9 (6.18)	기계세차 vs. 인간 세차대결	김창렬	9.61
10 (6.25)	물펌프 vs. 인간 목욕탕 물채우기	김진	10.85
11 (7.2)	굴삭기 vs. 인간 흙퍼담기	김종석	10.54
12 (7.9)	괌 특집 1탄 – 허리춤 빨리추기	이병진	12.07
13 (7.16)	괌 특집 2탄 – 차모르전사 밀어내기	이병진	8.73
14 (7.23)	소방차 사이렌 vs. 인간 소리지르기	이켠(고정)	7.64
15 (7.30)	모기향 vs. 인간 모기잡기	박명수(하차)	8.73
16 (8.6)	귀신의 집에서 소리 안 지르기	쥬얼리	7.41
17 (8.13)	컨베이어 벨트에서 연탄 나르기	차승원, 김진	10.97
18 (8.20)	BEST 5		6.78
19 (8.27)	불도저 vs. 인간 차굴리기(50m)	김범수	9.7
20 (9.3)	썰매개 vs. 인간 썰매끌기(빙판)	김종국	8.43
21 (9.10)	고공에서 60초 세기	정준하	9.33
22 (9.17)	에스파이토 vs. 무(모)한도전	조혜련	11.61
23 (9.24)	샤라포바 특집 1탄 –서비스받기	샤라포바	11.75
24 (10.1)	샤라포바 특집 2탄 –번호판 맞히기	샤라포바	8.74
25 (10.8)	여고생 172명과 팔씨름 대결	공형진	8.32
26 (10.15)	놀이기구에서 립스틱 바르기		8.97
27 (10.22)	타조와 달리기 대결 (미방영)	슈가	8.75

***** 유재석, 노홍철, 정형돈은 고정 멤버. (고정) 표시 멤버는 이후 방영분 (하차) 표시까지 고정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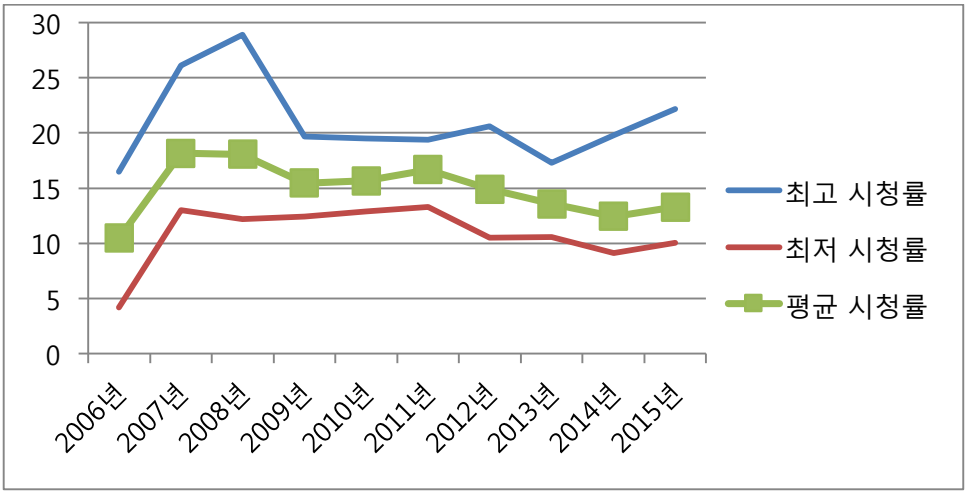
[Exhibit 2] - 무한도전 제 105화 방영분 (2008.05.17)

[Exhibi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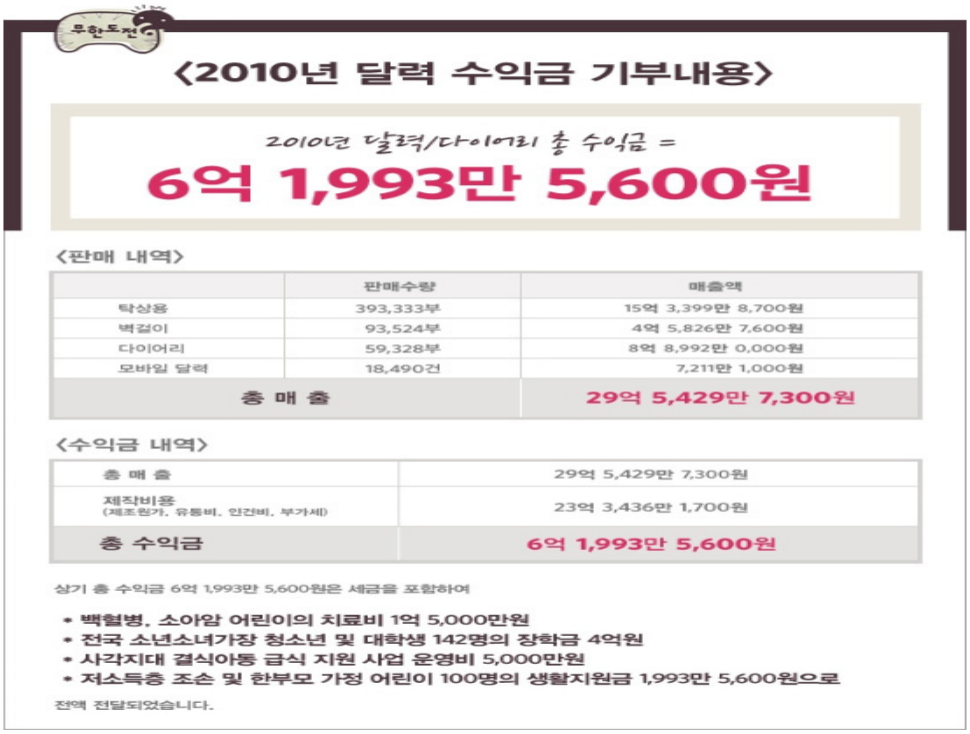
무한도전 출연진 각자의 캐릭터

유재석	정준하	박명수	노홍철	정형돈	하하
43세 주로 방송을 진행함. 성실하고 건강하여 시기 당함.	44세 아둔하고 잘 삐침. 음식 관련 도전을 잘 수행함.	45세 예민함. 진행 욕심이 있음. 이기적이지만 잔정 있음.	36세 강박이 있고 속이는 것을 좋아함. 자기애가 강함.	37세 아이디어가 뛰어나지만 전달이 약함. 두루 잘함.	36세 겁이 많고 지식이 모자람. 반응을 가장 잘 해줌.

[Exhibit 4] - 위키백과 시청률 집계 가공 자료



[Exhibit5] - MBC 무한도전



〈2010년 달력 수익금 기부내용〉

2010년 달력/다이어리 총 수익금 =

6억 1,993만 5,600원

〈판매 내역〉

	판매수량	매출액
탁상용	393,333부	15억 3,399만 8,700원
벽걸이	93,524부	4억 5,826만 7,600원
다이어리	59,328부	8억 8,992만 0,000원
모바일 달력	18,490건	7,211만 1,000원
총 매 출		29억 5,429만 7,300원

〈수익금 내역〉

총 매 출	29억 5,429만 7,300원
제작비용 (제조원가, 유통비, 인건비, 부가세)	23억 3,436만 1,700원
총 수익금	6억 1,993만 5,600원

상기 총 수익금 6억 1,993만 5,600원은 세금을 포함하여

-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 1억 5,000만원
- 전국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및 대학생 142명의 장학금 4억원
- 사각지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운영비 5,000만원
- 저소득층 조손 및 한부모 가정 어린이 100명의 생활지원금 1,993만 5,600원으로

전액 전달되었습니다.

[Exhibit 6] - 다음 아고라

온 국민을 속이고서도 아직까지 본인의 직접적인 사과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아무일 없었다는듯 티비에 얼굴을 내밀고 가식적인 웃음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걸 방치하는 소속사에 속한 광희의 인성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힘을 모아주세요. 광희의 무한도전 씩스맨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hibit 7] - 한국갤럽, MBC

▶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 2015년 5월 (상위 20위, 2개까지 자유응답)

순위	프로그램명			선호도(%)	4 월 순위(변동)		비고
1 위	무한도전	MBC	예능	9.3	1 위	(–)	
2 위	슈퍼맨이 돌아왔다	KBS2	예능	5.5	2 위	(–)	
3 위	비정상회담	JTBC	예능	3.7	5 위	(▲2)	
4 위	냉장고를 부탁해	JTBC	예능	3.4	11 위	(▲7)	11/17~
5 위	1 박 2 일	KBS2	예능	3.2	9 위	(▲4)	
6 위	런닝맨	SBS	예능	3.1	6 위	(–)	
7 위	썰전	JTBC	시사/교양	2.7	8 위	(▲1)	
8 위	삼시세끼-정선편	tvN	예능	2.4	–	(신규)	(정선편, 5/15~)
9 위	진짜 사나이	MBC	예능	2.2	19 위	(▲10)	
9 위	개그콘서트	KBS2	예능	2.2	3 위	(▽6)	
11 위	풍문으로 들었소	SBS	드라마	2.1	6 위	(▽5)	2/23~ (월화)
12 위	징비록	KBS1	드라마	1.9	15 위	(▲3)	2/14~ (주말)
13 위	화정	MBC	드라마	1.8	–	(신규)	4/13~ (월화)
13 위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시사/교양	1.8	15 위	(▲2)	
15 위	세계테마기행	EBS	다큐	1.7	–	(재진입)	3 월–17 위
15 위	달려라 장미	SBS	드라마	1.7	–	(신규)	12/15~ (일일)
17 위	라디오스타	MBC	예능	1.6	–	(재진입)	3 월–15 위
18 위	인간극장	KBS1	다큐	1.4	–	(재진입)	12 월–18 위
18 위	가요무대	KBS1	음악	1.4	–	(재진입)	3 월–12 위
20 위	파랑새의 집	KBS2	드라마	1.3	–	(신규)	2/21~ (주말)

질문) 귀하께서 요즘 가장 즐겨 보시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뉴스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십시오. (2 개까지 자유응답)